

LG생명과학, 미국에서 간암치료제 도입

LG생명과학(대표 양홍준)이 미국의 신약 개발회사인 엑시미아스에서 간암치료제 <티미탁>을 들여와 국내 독점 판매한다.

엑시미아스가 개발한 티미탁은 현재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인 3상시험이 진행중이며, 2004년 말 간암치료제로는 세계 최초로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치료효과가 확실한 간암치료제가 없어 간암치료를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지만 티미탁이 FDA 승인을 받으면 간암치료를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LG생명과학은 티미탁이 FDA 승인 이후 한국판매가 본격 시작되면 국내시장에서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엑시미아스는 199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설립된 신약개발 전문 벤처기업으로 항암제와 항감염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 10/ 15>